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6. 4.(목) 14시

재외동포청, 2026년 홍보대사로 '재외동포 출신' 산다라 박, '큰별쌤' 최태성 위촉

- 최태성 “모든 국민이 재외동포를 제대로 알게 되는 그날까지 노력할 것”
- 산다라박 “재외동포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으로 다가갈 것”

- ‘큰별쌤’ 최태성 역사 길잡이와 재외동포 출신 가수 2NE1의 멤버 산다라 박이 2026년 재외동포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6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최태성, 산다라박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.
- 지난해 초대 재외동포청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최태성 강사는 내년까지 연임하게 되었고, 산다라 박은 홍보대사로 처음 위촉되었다.
- 재외동포청은 최태성 강사가 지난 1년간 재외동포청 초대 홍보대사를 맡아 재외동포 이민사와 모국 기여 사례를 알기 쉽게 전달해 재외동포 인식 개선에 크게 공헌한 점을 고려해 올해 홍보대사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.
- 또 가수 산다라 박은 약 11년간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현지에서 국민적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로 성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공감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.
- 최태성 강사는 위촉식에서 “지난 1년간 약 40회의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”며, “많은 국민이 재외동포의 기여에 감사를 느꼈다고 말씀해주셨지만, 여전히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일부에 남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”며 “모든 국민이 재외동포를 올바르게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
- 산다라 박은 “10살에 필리핀에 가게 되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무서웠다”며, “하지만 필리핀에서 꿈을 이루고 저를 통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팬분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”며 재외동포로서의 삶을 회상했다. 이어 “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분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- 두 사람은 2027년 6월까지 재외동포 인식 개선과 재외동포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. 두 홍보대사는 위촉장을 받은 이후 첫 활동으로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 ‘동포ON’ 라이브에 출연한다.
 - 최태성 홍보대사의 라이브는 6.3.(수)에 진행되었고, 산다라 박 홍보대사의 라이브는 6.10.(수) 오후 3시에 송출될 예정이다. 해당 영상은 라이브 종료 후에도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.

붙임 : 위촉식 사진 4부. 끝.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재외동포청 대변인실 | 책임자 | 과 장 박병규 (032-585-3107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김민지 (032-585-3108) |

